

## 미술작품 설명회를 개최해 인문학을 널리 알리다

'who am i' 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창군청소년연합동아리다. 농촌이라는 지리적여건 때문에 평소 미술작품을 접하기 힘든 지역 주민들이 미술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성되었다. 미술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겨진 인문학적·철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직접 작품을 골라 공부하고 충분한 사전 연습을 거친 후 작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사건, 2014지방선거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주제로 작품을 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미술작품을 감상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인문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점심시간에 각 학교를 찾아가는 이벤트 형식의 '미술로 이야기하는 인문학 교실'도 진행했다. 평소 미술작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 다가가 인문학적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많은 친구들이 미술작품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미술은 물론 인문학과 철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접 미술관을 찾아 전시회를 보러 다니는 친구들도 생겼다. 그러다보니 동아리 활동에도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늘어나서 구성원이 점점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활동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자'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작품 설명회가 주로 열리는 거창 로터리는 높아진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